

도, '7대 민생안정 종합대책' 발표

추석 명절 앞두고 '재난·재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중점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4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도민 안전 불안·서민경제 어려움 가중 등을 감안해 '재난·재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도는 이같은 사항을 골자로 한 7대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살펴보면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 대책, ▲서민생활(불가, 임금)의 안정적 관리, ▲추석 명절 특별 교통안전 대책, ▲비상진료 및 보건·위생·환경 대책,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비상근무체계 유지 등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와 14개 시군은 재난·재해 24시간 비상상황 관리체계 및 39개소의 소독 통제초소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13일부터 19일까지 도내 60개 소방관서에서 특별 경계근무(인원 8,418명, 장비 3757대)를 실시하고, 다중밀집 장소인 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안전시설 등 126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추석 명절에 침체된 사회분위기와 어려운 국내 경기로 소비가 많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직거래장터 운영 등 지역상품 판매 확대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전년 대비 20%를 확대한 30억원의 판매를 목표로 개인 5%·법인 3%의 할인혜



30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가 2016년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방문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소년, 소녀가장·새터민·다문화 가정 등 총 2,200세대에 생계비 2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246개소에 차례상차리기 비용 등 4,600만원 상당의 생활품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40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한다.

추석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32개 명절 성수품에 대해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물가 동

향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명절을 앞두고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50억원의 자금을 수혈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체불임금 해소를 목표로 합동 지도반을 편성·운영한다.

연휴기간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 21개소를 지정,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당직의료기관 일평균 244개소와 당직약국 180개소를 운영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예정이다.

특히 감염병 발생 및 집단 환자 발생 상황에 대비 비상방역반 15반 운영을 기본으로 질병정보 모니터(1,378명)망을 지정 활용하는 등 콜레라 방

역 대책반도 운영된다.

또한,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의 판매·제조업소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등 특별단속과 함께 연휴기간 생활쓰레기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일 확대 및 국토대청결운동과 공중화장실 대청소를 실시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소외계층 지원 대책 확대 정책을 추진해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전기차 구입하면 600만원 지원

내년부터... 국비 지원 1400만원 포함하면 2000만원

전북도가 내년부터 민간의 전기차 구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2020년까지 전지자동차 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로 하고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지원했던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민간에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전기차 구입 시 600만 원의 지방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국비 1,400만 원을 포함하면 전기차 구매자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또 전기차 보급에 필요한 급속 충전 시설 53곳도 내년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해 내년부터 차량당 169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대기 질 관리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후반기 전북시장군수협의회 힘찬 출발

고창 상하농원에서 제1차 회의

민선 6기 하반기 전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 순창군수)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30일 고창군 상하농원에서는 박우정 고창군수 등 도내 14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6기 3차년도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통합지침 마련과 도비지원 건의, 귀농어업인 지원 자격 확대, 지역지원 시설에 개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무채용 폐지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 전주야행 천년뱃담 행사와 군산 시간여행축제, 남원 흥부제,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김제지평선축제, 정읍 구절초축제, 고창모양성제, 임실N치즈축제, 순창장류축제, 진안홍삼축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등 하반기 전북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해 공유하고 성공적 축제를 위해 행사홍보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민선 6기 전반기 회장역할에 열정을 다한 이진식 김제시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새로운 민선 6

기 하반기 전북시장군수협의회 힘찬 출발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황숙주 협의회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 유산을 보유한 문화예술의 도시 고창에서 민선 6기 3차년도 제1차 회의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14개 시군 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하반기 시장군수협의회가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각 지자체의 현안 해결과 전라북도 발전은 물론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노력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환영사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 상호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지방자치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여 농민과 농업, 그리고 도민 모두가 함께 웃는 전북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회의 후 상하농원과 고창의 구시포항을 견학하고 6차 산업을 통한 농촌 활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3개 자동차·탄소 유망 중기, 전북에 투자

일강, 김제·케이지에프, 전주·존스미디어, 군산에 등지... 600억 투자·140명 고용

자동차부품과 탄소제품 등을 생산하는 3개 유망 중소기업이 전북에 등지를 본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전주·군산·김제시는 도 종합상환실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조봉암 전주부시장, 김양원 군산부시장, 이승복 김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케이이에프, 존스미디어(주), (주)일강 등 유망 중소기업 3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3개 기업의 투자 규모는 총 투자액 600억 원 규모에 고용 예정인원은 140명 정도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탄소소재와 자동차 부품, 첨단 필름코팅분야 등에 투자하는 내실 있는 기업들로 이뤄져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를 생산

하는 (주)일강은 김제 지평선산업단지에 올해부터 366억 원을 투자해 52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또 전주친환경복합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주)케이이에프는 70억원을 투자하고 3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며, 케이이에프 하청 업체들도 동반 이전하기로 했다.

2001년 창업한 케이이에프는 탄소복합소재 사업부문에서 축적된 기술과

전문인력을 활용해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4년 군산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존스미디어(주)도 169억원을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추가 투자하고 50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다.

이 회사는 디지털 프린팅, 차량용 IM 필름, 전자용 IMR 필름, 디지털 클러스, 3D성형용 데코 소재 등을 생산한다.

김일재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회사, 일하기 좋은 회사로 가꿔가길 바란다"며 "우리 도와 시·군도 행정·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 아중천·완주 구룡천, 생태하천 복원 추진

새만금 유역 하천 생태복원 사업에 전주 아중천과 완주 구룡천이 신규로 포함되고 내년 관련 예산도 전액 반영됐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새만금 유역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신규 지정된 2개 사업과 기존 4개 사업 예산 176억 원이 전액 반영됐다.

신규 반영된 전주 아중천은 오니 준설과 호안정비 여울소 조성이 추진되

며 완주 구룡천은 생태호안 복원과 생태습지가 조성된다.

또 이들 사업은 아중 호수 생태공원 조성과 경천저수지 개발 사업과 연계되며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된다.

새만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난 2007년 시작돼 5개 시군 13곳에서 습지조성과 여울 조성, 생태호안 정비, 수생식물 식재, 도심 인공습지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고민형 기자

제10회 전국장애인가요제 안내

장애인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분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매년 장애인 가요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 ① 참가자 신청 : 등록 장애인 누구나 (16세이상)
- ② 신청방법 : 대중가요 1곡 선정하여 전화, 방문 팩스로 신청가능 (8월 31일까지)
- ③ 참고 : 도민누구나 관람가능. 행운권 추첨하여 상품 증정함

- * 일시 : 2016년 9월 3일 (토) 오후 4시 30분
- * 장소 :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 (남부시장 입구)
- * 주최 : 전북장애인 복지문제연구소
- * 후원 : 전라북도, 한국연예인협회 전북지부, 전북장애인 신문사



대회본부장: 김양욱



MC: 최현아(가수 겸 MC)

전북 장애인 복지문제 연구소

T. 286-6678 F. 287-6678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